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50
2022.4.24.

오늘의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자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_ 베드로후서 1:3-4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2-3 특집기획 | 6 청소년숲 세례입교 | 9 새벽기도/겨자씨나눔 |
| 4 유아숲 종려주일 행사 | 7 장애인사역부 예배다 | 10 세례입교자 인터뷰 |
| 5 유아숲 아기정원 | 8 전화상담부/남여선교회 | 11 돌봄타운 간증 |



내 이름을 손으로 말해보자

부부가 밤에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서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러웠던 어느 농아인 부부가 야광 장갑을 만들어서 여느 부부들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든다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꼭 말로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글로도 하고 그림으로 하기도 하지요.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이름을 손으로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테니까요.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③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목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앙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케이션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현대선교신학의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본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1952년 독일 빌링엔(Willingen)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IMC) 이후였다.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 빌링엔 대회의 신학적 성과를 요약하면서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라는 라틴어를 처음 사용했다. 칼 바르트가 말했던 '하나님의 행동'이란 개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교'를 제시했다.

'하나님의 선교' 배경

하나님의 선교는 근대 선교의 위기 속에서 잉태되었다. 선교의 위기가 낳은 옥동자 같은 신학적 개념이 하나님의 선교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하나님보다 서구교회 중심의 선교의 부작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 식민주의와 공모 관계에 빠진 선교, 서구 문화우월주의와 서구식 교회 이식 선교, 공산주의 등장과 기독교 선교 비판, 서구 선교사의 가부장주의적, 비관용적, 배타적, 오만한 선교 태도, 과거 피선교지 국가의 독립과 주권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전통 종교 부활 추구, 외래 종교(외국 선교사) 배척 및 추방 등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과 서구 교회 중심 선교의 문제점 비판과 대안 추구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교 이해

하나님의 선교란 오직 하나님만이 선교의 주체임을 고래 등의 심줄처럼 명확하게 말한다. 하나님만이 선교의 주체요, 근원이요, 원동력이요, 열매 맺는 분이시다. 선교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다. 인류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마음에 선교의 뿌리를 둔다. 선교는 하나님의 시작 없이 인간 스스로 개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거룩한 선교에 동참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서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삼위일체적 활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이해의 토대가 된다(요 17:18, 20:21, 행 1:8).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천명한 신학적 의미는 인간의 선교나 교회의 선교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요, 인간과 교회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할 때 바른 선교가 됨을 제시한다.

선교는 인간적 활동이나 교회의 일이 아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론이나 구원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에 그 토대를 둔다고 보았다. 보쉬는 빌링엔 선교 대회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고전적 교리가 확장되어 또 다른 운동을 포함하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것이다. 빌링엔의 선교 이해는 하나님의 파송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다. 우리의 선교는 그 자체로서는 생명력이 없다. 오직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교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교회 설립이나 성장, 사회 봉사와 인류애의 구현,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등은

하나님의 선교에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에서만 그것은 참으로 선교라 부를 수 있으며, 특히 선교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선교의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선교 이해의 획기적인 혁신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교회는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파송 받은 존재로 이해된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파송한다는 선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신학적 이해를 명확히 한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파송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인간은 동사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주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 선교다.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나라나 교회가 따로 있고, 선교사를 받는 피선교지 나라나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육대륙 선교’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에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선교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교회 설립이나 성장, 사회 봉사와 인류애의 구현,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등은 하나님의 선교에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통전적이며 총체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태도와 자세 및 방향은 한마디로 십자가 선교다. 빌링엔 선교 대회는 승리자나 정복자의 태도 대신 희생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 대회를 가졌다. 십자군식으로 정복과 전투 성격의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선교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하나님의 선교 이해와 실천 방식에서 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있었다. 교회보다는 세상의 정부가 공적 제도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차적인 수단으로 보는 신학과 교회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신학으로 나누어졌다. 전자는 교회를 배제하고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학적 토론과 논쟁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역할과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여전히 남는 과제는 전도와 사회 봉사의 관계성인데,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통전적이며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 정립되었다고 본다. 세상 속에서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존재와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과 구속 역사를 세상 속에서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매개체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교회 역시 고유한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선교가 없다면 교회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을 세상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의 범위는 단지 인간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문제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영적인 것만이 아니다. 세상과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탈역사적이지 않다. 오히려 죄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구속을 구현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이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사

회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인간 삶과 세상의 모든 차원의 변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존재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교회는 선교를 본질로 하는 선교적 공동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분리된 교회는 본질을 배반하는 것이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곧 선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공헌과 방향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이후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소개된 ‘하나님의 선교’개념은 소위 운동권 신학으로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식이나 설립과 성장 중심으로 선교를 이해했다. 선교라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혹은 사업 중심으로 보았다. 일부 예외적인 현상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선교’개념을 단순히 ‘전도’와 ‘해외선교’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제 지난 날의 편협한 선교 이해를 벗어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교 이해를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 이해를 제시하며, 교회의 선교 자세를 갱신하도록 요청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개 교회나 교파 교세 확장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선교, 참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선교보다 개 교회 혹은 개 교파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는 선교를 회개하고 변화시키도록 요청한다. 둘째,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우쳐준다. 교회 자체의 생존과 성장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일깨워준다. 격변하는 세계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 주었다. 아울러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줌으로써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선교의 영역과 과제를 획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셋째, 교회를 수단화하는 오류를 극복하게 한다. 교회의 무용론이나 약화도 문제지만, 교회를 사회, 경제적 변화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다. 선교하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대화적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예언자적 목소리도 낸다. 대화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기관을 존중하며 복음 선포를 위해 대화한다는 것이다. 예언자적이라는 말은 불의와 악과 거짓에 대한 심판만 아니라 선교하는 자기 자신(교회와 선교사와 모든 선교하는 성도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현지인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교로 실천되어야 한다. 선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는 선교로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 전파, 교회 설립과 성장을 포함하여 세상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지는 선교이다. 교회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창조물의 구원과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창조물들의 행복을 위한 정의, 복지,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선교는 창조질서 보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차원과 영혼 구원과 회심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차원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선교이다. 김명동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지난 종려주일(4월 10일) 정신여중 로템정원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유아숲 어린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유아숲 어린이들은 각 부서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길에는 부직포로 만든 옷들을 깔았습니다.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를 찬양하며 유아숲 어린이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예수님의 역할을 한 선생님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유아숲 어린이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호산나 행진을 했습니다. 유아숲 종려주일 특별활동으로 진행되었던 호산나 행진에는 5명의 교역자를 비롯하여 어린이 48명, 부모 23명, 교사 47명 참석했습니다.

미취학시기의 어린이들에게 경험과 놀이만큼 좋은 배움은 없으며, 이러한 절기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올바른 신앙형성과 나아가 기독교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결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아숲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오정 전도사 / 유아숲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 배우는 아기정원

아기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생후 18개월부터 40개월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 쉬는 동안 연령이 지나서 아기정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아기정원의 시간들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25기를 전격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극심하게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결단한 소중한 여섯 가정과 함께 아기정원 25기가 활짝 피었습니다. 아기정원 25기는 3월 17일 입학예배를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사랑의 예수님, 계절, 출애굽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3월 31일에는 양수리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야외학습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놀이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아기의 믿음이 자라고 엄마도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아기정원입니다.

이은미 전도사 / 유아숲



나의 신앙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모양새가 달라진 것은 고등부 세례입교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례·입교는 인생에 한 번 뿐인,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방법을 고뇌하던 차 작년 상반기부터는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예식 당일에 코로나로 인해 참여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 컸다.

교재는 총 4주차로 구성되어있는 주님의교회 공식 세례입교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고, 과제는 아이들이 직접 영상 촬영 혹은 녹음을 하며 준비된 질문에 꼼꼼하게 대답을 한 후 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처럼 교육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음에도 아이들은 잘 참여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 주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주고 있다. 때로는 학원과 과외 등 바쁜 스케줄에 치여 2, 3주차 과제를 한 번에 제출하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 제출에도 애써준다.

5주 차에는 청소년숲 목사님과 교육위원장 장로님과의 Zoom을 통한 문답식이 준비되어 있다. 친구들 모두 학원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문답식은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3, 4타임에 나눠서 진행되곤 한다. 매 분기, 문답식 전 열심히 예상 문제를 외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떨릴까?’를 생각하며, 나 역시 같이 설렘 때가 많다.



21년 하반기 세례입교예식 단체사진

고등부에서는 21년 상반기에는 17명의 학생이, 하반기에는 5명의 학생이, 그리고 22년 상반기에는 7명의 학생이 세례·입교 교육을 마치고 주님의교회 세례교인·입교인이 되었다.



22년 상반기 세례입교예식 단체사진 ▲▶



◀▶ 21년 상반기 세례입교예식 단체사진



어느덧 3분기의 세례입교교육이 모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예식까지 치러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울컥한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고 다시금 함께 모여 걱정 없이 얼굴을 맞대고 교육할 날들을 기대해본다.

조영찬 전도사 / 청소년숲



기독교인 모두에게 세례입교예식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다. 자신의 신앙으로 주를 고백하고 교회의 세례교인·입교인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주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고로, 우리 고등부 세례입교교육예식은 항상 축제다. 가족들과 청소년숲 교역자들은 물론, 부장단과 반 담임선생님들도 함께 3부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여 진심어린 축하를 해주신다. 끝나고 구성원 모두가 무대에서 찍는 단체사진은 추억으로 삼아 VIP Ministry 앱에 꾸준히 보관해오고 있다.



21년 상반기 세례입교예식 단체사진

장애인사역부 | 에바다

잘 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주님의교회 장애인사역부에 속한 '에바다'는 청각장애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예배, 에바다찬양대

청각장애는 청력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농, 잔존 청력이 남아있는 난청으로 구분되며,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 등이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에바다'에 속한 농인 집사님들의 언어 전달 체계는 소리로 전달하는 말보다는 손으로 전달하는 수어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예배 기도 및 성경봉독

수어는 단순히 손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어와 더불어 몸짓, 표정, 성격, 행동 양식, 삶의 분위기 등이 어우러져서 전달되는 통합성을 띤 언어입니다. 말 속에 다양한 말투가 있듯이, 수어로 대화해보면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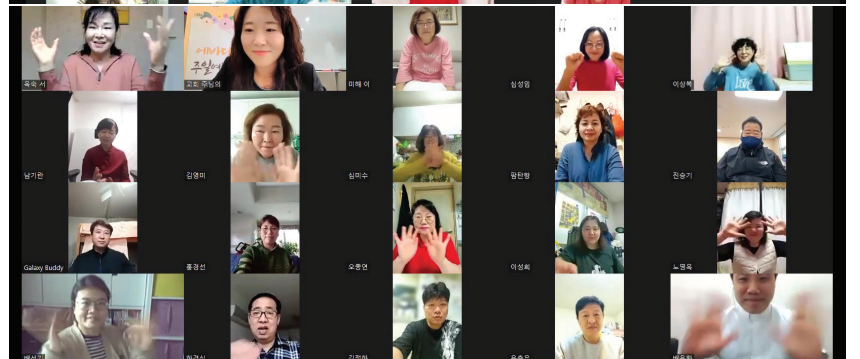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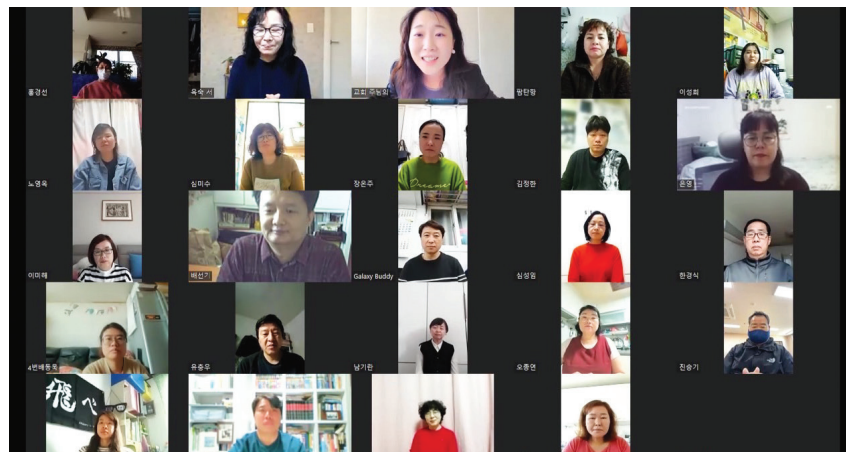
성령강림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단체사진

농인(Deaf person)은 영어로 '잘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농인은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어적소수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의교회 안에서 같이 사는 즐거움을 서로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농인과 청인이 함께 예배하며 소통하는 가장 가까운 곳, 주님의교회 '에바다'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잠시 떼어놓고 예배의 자리로 깊이 들어갑시다. 서로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기대하며 '에바다'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 기도 및 성경봉독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저서 : 「영혼에 닿은 언어 : 이 땅의 농인과 한국수어 이야기」, 김유미, 홍성사, 2016.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전화상담부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로 요즘의 단어로 바꾸면 "위대한(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육신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공감하시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부는 기독교상담을 공부한 상담자들이 자원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처입은 내담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년간 상담부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상담부 재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3월 24일 오전 10시~12시까지 이상억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를 모시고 <매체를 이용한 기독교상담가의 자세와 방법론>에 대하여 상담부 부원들 및 상담에 관심이 있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줌(zoom)으로 참여하며 유익하고 마음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억 교수의 강의를 함께 나누자면,

- ① 상담자는 상처입고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해답(정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② 상담자의 역할은 그들의 말에 경청(Active Listening)하고 공감(Inter-Pathy)하는 것입니다.
- ③ 듣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닫힌 마음의 창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으며, 상담자의 마음에 살롬(평화)이 있어야 불안정한 내담자에게 의미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영적인 든든함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화상담은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본인의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고백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익명정보장과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⑤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이 다른 점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담자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상담자인 우리는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상처입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고백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주님의교회 상담실에 전화를 하는 모든 분들과 함줄함울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방혜령 권사 / 전화상담부 부장

남선교회 · 여전도회 | 부활절 맞이 대청소

왜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하는가?

2022년 4월 16일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를 마친 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부활절을 맞아 대청소를 하였다. 중예배실부터 소예배실, 대예배실, 찬양대실과 건물 주변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며 대청소를 하였다. 남선교회에서는 예배용 장의자를 들어 바닥의 먼지를 쓸어담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여전도회에서 손걸레로 꼼꼼히 의자를 닦으며 코로나로 쌓였던 먼지를 쓸어내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부활절맞이 대청소예의 발견 : 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하는가?

4월 9일 토요일 마지막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지하식당에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원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지하 강당부터 1, 2, 3층을 쓸고 닦고 말끔히 청소했다. 해마다 하는 청소지만 코로나 이전과 색다른 느낌이다. 마치 새로 지어 봉헌하는 신축교회당의 입주를 위한 그런 가슴 설레는 심정이다. 청소가 끝나고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아침별식을 먹다가 갑자기 느헤미야가 생각났다. 그것도 성경을 날마다 읽지도 않은 주제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관한 것이 오늘의 청소와 강하게 연결 짓고 싶은 마음은 무엇 때문일지 모르겠다.

시대와 상황 모두가 전혀 다르지만 성소의 본래 모습, 즉 교회공동체의 원 모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만큼은 정확하게 일치한 것 같다. 유다총독 느헤미야는 3차 바벨론 포로귀환과정에서 고향사람 하나에게서 고향소식을 듣는다. 남아있는 동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느1:3~4) 예전에 비하면 긴 의자에 두 사람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성이 허물어진 모습과 같다고나 할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이 된다고 보면 이해가 된다. 우리는 모두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흠어진 성도(벽돌)들을 모아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 된 자의 도리라 여겨진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 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 그 이름만 나와도 몸 된 교회가 생각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편히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을 경외하는 뜨거운 신앙 열정이 있었기에 고향 성벽의 훼파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찢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며 아닥다스다의 왕을 감복시켰을 것이다. 13장 마지막은 이렇게 요약된다. 13장 재개혁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이다. 청소를 묵상하며 우리의 흠어진 지체를 모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것이 주님보시기에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마지막 빗질해본다.

신영백 안수집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잎과 열매가 되어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온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보다 앞선 몇 주 동안, 교회 로비에는 “주께로 더 가까이 202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개근 작정 게시판”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사용하던 개근 작정 게시판이 낡아서 이번에 교회의 여러 성도와 교역자들이 손수 새로 제작한 게시판은 나무를 상징하며, 참여하는 교인들은 잎과 열매를 뜻한다. 이번 특새에는 무려 912명의 성도가 이 나무를 꾸미는 잎사귀로 참여해서 푸르름을 더했다.

함글함글



겨자씨 나눔이야기

겨자씨는 이런 곳

샬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3교구 로템 겨자씨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인도자로 정승아 권사와 권창로 이유진 집사를 리더로 섬기고 있으며 총 13명의 엄마들로 구성된 따뜻한 모임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서로의 집에서 애찬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은 말씀 암송으로 하고 마지막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저희 겨자씨 예배는 눈물도 사랑도 넘치는 시간입니다. 사실 처음 겨자씨 모임을 할때 식사 준비와 집을 예배 장소로 한다는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돕고 챙기시는 모습에 그런 부담도 사르르 녹아버렸답니다. 첫째가 너무 어려서 예배 중간에 일찍 나설 때면 밥을 못 먹고 간다고 도시락까지 챙겨 주시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그때 집사님들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던 꼬마가 벌써 5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중에 나에게 겨자씨란? 이라는 나눔을 했습니다. 저희의 나눔으로 로템 가족들의 소개를 대신합니다.

정승아 : 겨자씨는 내 면류관이다! 모두가 내 사랑이고 자녀들 같이 느껴집니다.

강민주 : 겨자씨는 내 청춘이다! 긴 시간을 함께 했고 어떤 나눔을 해도 품어주는 곳입니다.

서주형 : 겨자씨는 눈물이다! 내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남수경 : 겨자씨는 믿음의 족쇄이다! 믿음으로 꼭 붙들어 주는 동아줄입니다.

신혜선 : 겨자씨는 든든한 내 편입니다!

장민정 : 겨자씨는 가족이다! 겨자씨에 언니도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습니다.

송영옥 : 겨자씨는 울타리이다! 양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곳입니다.

이유진 : 겨자씨는 동지이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푸근한 자리입니다.

김혜령 : 겨자씨는 풍성한 식탁입니다! 영혼이 채워지는 배부른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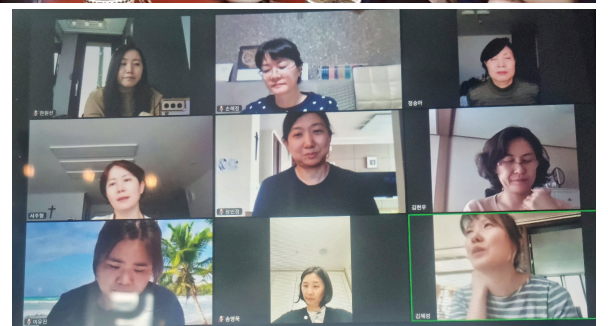
손혜정 : 겨자씨는 위로대! 나에게 늘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김세진 : 겨자씨는 믿음밭이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한원선 : 겨자씨는 천국밭이다! 함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천국으로 가는 곳입니다.

저희에게 겨자씨는 이런 곳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는 일에 주저함이 있으시다면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용기내어 보시는건 어떨까요? 믿음의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은 참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한원선 집사 / 3교구 로템겨자씨



세례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신혼부부인 오진·김영주 성도의 인터뷰 내용과 입교한 김아현 청년의 간증문을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1.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오 진 : 부모님 따라서 초등학교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중고등학교때부터는 불성실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기로 했다.

김영주 :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대고 싶은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진형제와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다.

2.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오 진 : 어린시절부터 다니던 교회이고 현재 부모님께서도 출석하시는 교회이며, 교육프로그램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출석하게 되었다.

김영주 : 오진형제를 따라 자연스럽게 출석하게 되었다.

3.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히 느끼거나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 진 : 모르고 있거나 잊고 지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기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그동안은 힘들 때 도와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알게 되었다.

김영주 : 지금까지 무교여서 단어도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많이 접하면서 익숙해졌고 어려운 단어는 잘 설명해주셔서 뜻을 잘 알게 되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4. 세례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 진 : 가족까지만 생각하고 하던 기도에서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했으니 창피하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영주 : 주변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를 돌아보고 주변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5.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과 다짐들은 무엇인가요?

오 진 :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님께 여쭙면서 주님 뜻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주 : 아버님께서 좋은 교회와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6.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오 진 : 혼자 성경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다. 새신자교육, 세례교육 등의 교육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교육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김영주 :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꼭 추천한다.



대학 캠퍼스에서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소속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모태신앙인 친구들과 전도를 받아 믿게 된 친구들이 서로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은 친구들의 경우,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다는 점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성경에 관한 지식에 해박하다는 점이 가장 부럽다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건지 그저 습관적으로 믿는 시늉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믿지 않다가 개종한 친구들은 주님께 대해 그만큼 확신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올해 입교하게 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친가와 외가가 전부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축복송을 자장가 삼고 유치원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며 가족들의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매주 일요일의 당연한 일상이고, 여름방학에도 겨울방학에도 교회 수련회를 다녀오며 옷장에는 수련회 티셔츠가 매년 두 장씩 늘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부족함 없이 주님께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믿음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치 학교를 다니듯 그저 가야 하는 곳이라는 의무감으로 다닌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숙제로 일기를 몰아서 쓰듯이 큐티는 미루기 바빴고, 기도는 귀찮아하며 마음도 없이 시늉만 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건 더더욱 아니니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끔 마음이 찢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고등부 사역팀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가장 깊게 뿌리를 내렸던 시절이 이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는 있었지만 대학부나 청년부 없이 바로 장년부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 입학 후 새로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어려워하던 저는 CCC에서 공동체를 찾으며 교회 정착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캠퍼스 모임과 채플로 대신하고, 교회의 소모임은 CCC 동기들과 선배들과의 교제로 대신할 정도로, 지난 5년 가까이 제 신앙생활의 중심은 CCC였습니다.

저도 동기들도 졸업을 앞두고 CCC 생활이 뜸해지면서, 저는 제가 점점 다시 주님께 소홀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후회하며, 저는 몇 년 전 부모님의 추천으로 오고 등록했던 주님의교회 청년부 예배를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당시 마침 세례, 입교 교육에 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교를 통해 다시 한 번 제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제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위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CCC에서 제가 배운 것 중 제일은, 믿는 교인들의 공동체는 저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모임이나 사역을 함께하며 공동체와 교제를 해야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눈치채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며 가장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교회가 하는 다섯 가지 역할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저는 입교 후에도 이 다섯 가지 역할을 되새기며 교회를 다니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 사역에 함께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붙들음을 받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코로나나 취업 등 세상의 일이 삶을 어렵게 할 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참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제겐 참 어려운 말입니다. 힘들 때에는 친구들과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어려울 때에 믿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초반에는 함께 불평하더라도 끝에는 주님을 의지하라 서로 조언해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아현 / 청년부

신앙간증문

기도와 손길이 필요한 어느 곳이라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애인시설 돌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전경애 목사입니다.

제가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드려곤 합니다.

경북 청도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 시골 마을에 예수쟁이 집이라 불리는 덕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집 6남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교회 두 곳을 개척하시며 동네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모님처럼 모셨는데, 어린 전 그렇게 모신 어르신들이 친할머니인 줄 알고 잘도 따랐지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께서 천국 가시던 날,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동네가 떠나가도록 너무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린 소녀에게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또 새벽까지 매일 아버지 등에 업혀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덕에 제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싹이 단단하게 자리하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 없지만 장애인 재활원 앞을 지날 때마다 저들의 생활이 궁금했고, 제 마음을 저들 곁에서 함께 두고 싶다는 마음과 꿈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마음에 이끌리듯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몇 년이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당시에 멕시코 선교사로 계신 저의 오빠가 아는 목사님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것이 제 오랜 바람의 응답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서툰 표현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덕에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 가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말씀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저씨로 평소 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분이셨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늘 그렇듯 눈 맞춤과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긴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에... 전화.. 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분이셨지요. 당황도 잠시,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채근도 하고, 기쁨과 감동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어리숙한 말투로 아버지와 형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아저씨를 보며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며 감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께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닫힌 마음의 문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말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을 닫힌 마음으로 살아오며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죄송스러웠습니다.



석촌호수에서, 친오빠 가족과 함께 (오른쪽 필자)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장애인들을 돕고, 함께 살아오며 쌓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 그리고 눈물과 괴로움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선 버틸 수 없는 힘겨운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_ 마태복음 25장 35-36절

2001년, 마태복음 25장 35-36절의 말씀을 기초삼아 제가 살고 있던 평범하고, 작은 보금자리는 “돌봄의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의 엄마로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주위에서는 너무 무모하다고 만류하고, 반대하던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 여겼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온 것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가족들과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소중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부딪히며 살아온 시간 18년. 동네의 작은 문제도 의심의 1순위가 되곤 했던 그곳에서 벗어나 지금은 강원도의 외딴 시골마을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장애가족들을 환영하진 않지만 이분들에게 전보다 맑은 공기와 멋진 자연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원이 없어 40분을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고령에 지병이 있는 장애가족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비상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직 횡성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부족한 생활비와 인력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더욱 힘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계상황 속에서도 더 의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인도하셨고,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이뤄낼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손길이 필요한 어느 곳이라면 움직이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전경애 목사 / 돌봄타운

아기 나들이

2022.4.17. 3부 예배

아기 : 송재웅 (2021년 6월 7일생)

아빠 : 송창환 집사 **엄마 :** 정유경 집사

▶ 자녀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이 충만하길
2.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되길
3.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LOVE

성경 따라 쓰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며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문명의 허무함과 진정한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원수들은 언제나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흠어놓으신 동안,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개인적 말씀 묵상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따라 쓰는 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필사를 통해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따라 쓰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길 기대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일 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감동으로 직접 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시영 목사

교회일정

5/1(주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예식
5/4(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7교구 주관)
5/8(주일)	어버이주일
5/15(주일)	청년주일, 교사주일

알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VOL.5

본문 및 기간 : 창세기, 5/1(주일) - 8/10(수)

배부 및 수령 : 1층 로비(무인판매대)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2.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줄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줄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줄함울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주차안내부에서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항

- 교회에 나오실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 정문 진출입시 30m 전방부터 **비상깜박이 작동**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 내에서는 **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운동장 **도보 진출입시 계단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서쪽에 지정된 '영유아 지정석' **무단주차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주차장에서는 **주차안내부원의 유도**에 따를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2. 3. 6 (주일)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2. 4. 10 (주일)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2. 5. 15 (주일), 2차선거 2022. 5. 22 (주일)

●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재공지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일 기준)	자질 및 성품
장로	7년	10년	만40세 - 65세 미만	성숙한 신성과 충실한 노력이 있는 자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 - 70세 미만	행위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권사	5년	5년	만30세 - 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전할만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항존직(목회장로, 사임장로, 시무, 은퇴 안수집사, 시무, 은퇴권사, 협동장로)
- 거자비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1년 12월 5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부디폴페어런팅센터 2022년 상반기 교육일정



해피맘스쿨	3/8 - 4/26 (화) 오후 1:00	현장, 온라인 병행	김은선 목사 010-4773-8186
아름다운 부모학교	3/11-4/29 (금)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세돌학당	3/12-11/5 (토) 오후 6:00	온라인 강의	이은미 전도사 010-2376-6561
마더와이즈	3/29-5/22 (화)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정은영 목사 010-9592-0820
파더와이즈	3/29-5/22 (화)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결혼예비학교	5/15-5/29 (주일) 오후 4:00	현장 강의	이지형 전도사 010-4817-0109

자녀축복 선택기도회	2/12 3/12 5/14 6/11	매월 둘째 주 (토) 오전 5:20	현장, 온라인 병행	김경민 전도사 010-7126-2712
------------	---------------------	---------------------	------------	--------------------------

주님의교회

